제26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 답변

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

박 주 화 의원

“보문산 관광사업 완성을 위해
보문산의 핵심 관광콘텐츠 발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영·유아의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가칭)유아교육수당 도입을 제안합니다.”

시정질문과 답변 내용(일괄질문 · 일괄답변)입니다.

박 주 화 의원

◉ 박주화 의원

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 박주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우리 시가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실현해야 할 사업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최근 우리 대전시 관광사업의 주요쟁점인 보문산 관광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선행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이장우 시장께서 보문산 관광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뜻을 보이면서 보문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또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대전광역시개발위원회 주관으로 보문산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요.

40년 넘게 보문산 인근 동네에 살고 있는 저는 토론회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참관을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민 1,220여 명을 대상으로 보문산 개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개발위원회에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 대전시민의 51%는 보문산을 중부권 거점 관광지로 발전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문산을 중심으로 대사동 전망대와 오월드, 뿌리공원, 효문화진흥원 등 관광거점 간의 연계를 통한 관광 활성화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도 약 58%가 긍정적으로 답한 것을 보면 보문산 관광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큰 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문산은 1965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2009년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사정, 대사, 호동, 행평 등 4개의 근린공원과 역사공원 한 곳, 문화공원 한 곳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대전을 대표하는 공원입니다.

전망대와 야외음악당, 보훈공원, 청년광장,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이 잘 조성되어 있고 보문산 정상에는 백제시대에 축조된 보문산성과 시루봉, 고촉사가 자리하고 있으며 깊은 골짜기에 20여 곳의 약수터와 보문산 인근 마을로 이어지는 여러 갈래의 등산로가 있어 사계절 내내 많은 시민들이 보문산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보문산 서쪽 안영동에는 뿌리공원과 오월드가 위치해 전국 각지에서 대전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대전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입니다.

오늘 제 질문에 앞서 존경하는 민경배 의원님께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님께 임기 내에 보문산 관광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하셨는데 저도 이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하지만 시장님, 여전히 대전시청 앞에는 보문산의 환경이 훼손될 것을 걱정하여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보문산은 대전시민이 가장 선호하는 도시공원 중 하나이자 대전시 녹지네트워크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토목공사 위주의 시설투자로 자연이 훼손될 수 있는

점을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저 역시 개발을 앞세워 보문산의 원형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대 시장들이 보문산 관광개발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보문산의 환경훼손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이해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저는 보문산 관광개발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걱정하는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복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간 보문산 관광개발사업이 진전을 이루지 못했던 또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요?

이장우 시장께서 진정으로 보문산 관광개발사업을 이뤄내실 의지가 있으시다면 그동안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던 원인을 찾아보고 그에 대한 보완점과 대안을 찾는 일부터 하셔야 합니다.

저는 제9대 대전광역시의회에 들어온 후 보문산 관광개발사업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시장들은 보문산 관광개발사업을 지나치게 개발과 시설투자 등 하드웨어 개발 측면에서만 바라본 것이 문제였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보문산이 갖고 있는 환경과 가치에 대해 깊은 고민이 없었고 보문산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발굴하여 방문객들에게 감동을 주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던 것이 보문산 관광개발사업의 발목을 잡는 원인이 됐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계획되었던 토목과 개발 위주의 계획은 반드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새로운 전략이 더해지지 않는 한 이 사업은 또 다시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보문산 관광개발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보문산 관광개발사업의 반대의 목소리이자 걸림돌로 작용했던 '전망대만 있으면 되느냐?' '곤돌라만 오간다고 관광사업이 성공하겠느냐?' '환경훼손에 대한 대비는 없지 않느냐?' 등 무수히 많은 질문들의 해답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저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째, 야간 시간대를 활용하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부각되는 관광의 화두는 야간경제관광입니다.

20~30년 전의 야간 개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야간경제관광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한정된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기고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로 낮시간과 밤시간의 경계를 허물고 밤시간에도 경제활동이 지속되는 야간경제가 확산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야간경제관광은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의 관광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을 기반으로 한 건전한 야간활동으로 도시경제에 활력을 주는 관광활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때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다양한 여가활동이 야간경제산업과 맞물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야간관광 100선을 선정하고 있고 학계에서도 관광산업을 선도하고 싶다면 야간관광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야간관광지로 경쟁력이 있는 곳을 뽑는다면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여러 곳이 있겠지만 저는 대전의 야경명소인 보문산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광 측면에서 밤은 일상에서 느끼는 낮과는 다른 매력이 있고 야간의 매력성은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가 하면 일탈과 감동을 배가시켜 특별한 소비를 유발하게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14시 10분 영상자료 개시)

(14시 11분 영상자료 종료)

최근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큰 성공을 거둔 사례도 있습니다.

경상남도 통영시의 야간 디지털 테마파크 디피랑인데 저는 통영시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보문산에 대입한다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통영시 남망산 산책로에 조성된 디피랑은 디지털 신기술인 미디어아트를 접목시킨 관광프로그램으로 통영의 유명 벽화마을인 동피랑과 서피랑의 벽화와 지역에 전해오는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를 배경으로 재미와 감동이 있는 매우 매력적인 관광상품이라고 판단됩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관광이 멈추었던 2020년에 개장하여 개장 1년 만에 손익분기점을 뛰어넘으며 위축돼 있던 지역경제가 회복되는 데 효자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관광과는 거리가 멀었던 동네 뒷산의 어두운

산길을 재미와 감동이 있는 관광명소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러한 디지털 야간콘텐츠를 보문산 관광사업에 적용한다면 기존에 계획하고 있는 인프라 구축 사업의 당위성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방문객 유치에도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대전오월드에도 디피랑과 유사한 나이트 유니버스가 개막돼 주목을 끌고 있는데 보문산은 도심과 접근성이 좋아 시민은 물론 관광객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이 있는 만큼 전략을 잘 세워 추진한다면 보문산은 물론 대전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인기 관광상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둘째, 보문산 개발사업으로 조성될 관광 인프라에 스토리를 더하는 전략을 구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보문산 인근의 문창동과 부사동, 산성동 등 원도심이 지닌 레트로 감성과 지역의 특화된 먹거리를 관광 인프라 시설 운영에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입니다.

전통적으로 문창동은 대전을 대표하는 떡골목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특히 문창시장은 1980년대 대전시 내에서 거래되던 떡의 60%를 만들어 '떡시장'이란 별칭을 얻을 정도로 대전의 전통시장 중 떡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먹거리가 풍부해진 요즘에도 문창시장에는 명품 떡집들이 즐비하며 특히 바람떡은 문창시장 떡집의 대표상품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뿌리공원과 한국효문화진흥원에 인접하고 있는 산성시장 주변은 칼국수 맛집이 많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대전은 칼국수 축제를 개최할 정도로 전국에서 칼국수로 유명한 도시라는 점에 더해 산성시장 인근에 산재한 칼국수 맛집을 관광마케팅에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먹거리는 관광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콘텐츠로 대전시민은 물론 전국 각지의 관광객을 보문산으로 오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보문산의 주요 관광거점 간의 이동을 유도하는 일에 매력적인 도구가 되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기에 대사동과 부사동 지역 원도심 마을의 오래된 골목길에 스토리를 입혀 방문객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마을의 낡은 듯 정감이 가는 풍경은 20~30대 MZ세대들에게는 부모와 조부모 세대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감성 콘텐츠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택의 여유공간을 게스트하우스나 민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전의 자랑이자 보문산의 자랑인 효 콘텐츠를 테마로 일명 스토리가 있는 효 벽화마을로 조성하는 방안도 시도해 볼 만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장우 시장님!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 임기 내에 보문산 관광개발사업을 이뤄낼 방안을 찾고 계신다면 오늘 저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움츠려 있던 관광시장이 기지개를 펴는 한 해였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회복세가 기대되는 내년부터는 그동안 움츠려 있던 만큼 폭발적인 성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 속에 전국의 주요 도시들은 늘어나는 관광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관광산업을 조속히 회복하여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문산 관광개발사업이 대전관광의 부활을 알리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우리 박주화 의원님께서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최소화 계획 선행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문산은 우리 시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접근성도 뛰어나고 또 시민들로부터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산입니다.

또 과거에는 케이블카가 운영됐던 곳으로 시민들의 많은 추억이 깃든 명소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오랫동안 보문산 관광 인프라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사실상 계획된 수립을 제대로 완료한 적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전문가, 환경 등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관공동회의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또 시민토론회와 여론조사도 실시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 중인 사업들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국내에서 경쟁력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우선 오월드나 이쪽 지역에, 특히 호남지역에서 많은 아이들하고 동물원에 오게 되는데 공통적으로 꼭 문의하고 있는 것이 아이들과 1박을 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요구하는데, 대전에 사실 잘 안 되어 있어서 대부분 천안이나 이런 데로 간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류형이 안 되고 잠시 들렀다 가는 상황이 되고 또 이쪽 대사동 쪽하고 오월드나 이쪽하고 연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교통편의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대사동 대사지구하고 동물원 이쪽에 곤돌라나 케이블카를 연결하는 것이 숙박형과 더불어서 유익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려면 최소한의 기초적인 인프라는 갖춰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잘 안 갖추다 보니까 대전에서 사실상 1박을 제대로 하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이런 여론, 또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개발계획만 있고 제대로 실천 안 하면서 보문산 관광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특히 보문산 주변 중구에 많은 시민들의 어떤 걱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해지고 있어서 저는 보문산 관광의 여러 가지 경쟁력을 위해서는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쪽 보문산 중턱에 있는 목조전망대는 최근에 산림청하고 협의가 다 돼서 일부 변경을, 수정해서 합니다만, 제가 부사동에 살고 그래서 이쪽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전망대에서는 대전시가 이쪽 동구하고 중구 일부 지역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망대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대전시 전체를 한눈에 바라보는 지역 그리고 도리어 뒤편 계룡산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를 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오월드와 대사지구를 연결할 수 있는 수단 그리고 노약자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산에 대한 접근권 개선을 위해서라도 곤돌라나 케이블카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1박 2일 대전에 와서 아이들이 동물원 정도의 시설 가지고는 1박 하기가 어렵고 또 젊은 가족단위의,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이 사실 물놀이장이 없어서 타 시·도로 지금 상당히 관광을 다녀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 젊은 부부들, 아이들이 있는 부부들이 물놀이장을 갖춰달라는 말씀과 숙박시설을 갖춰달라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여론들을 종합검토해서 보문산 전체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다각적인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전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타워 건립 그리고 대사지구와 동물원 전체 산성동 방향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곤돌라와 케이블카, 보문산 정상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가족단위의 물놀이장 시설, 숙박시설을 함께 갖춘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가지고 지금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선 현장조사와 더불어 환경성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호주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에도 예를 들면 케이블카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 우선 환경등급이 최하위 등급 지역으로 케이블카의 노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환경 관련한 등급을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 피치 못해서 환경등급 최하위 등급에 만약 가는 노선이 있으면 일단 곤돌라나 케이블카를 설치한 다음에 훼손된 일부 환경에 대한 신속한 복원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국립공원에도 케이블카나 곤돌라를 설치하게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대표적인 설악산에도 지금 케이블카가 곧 건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환경부하고 강원도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거의 마쳐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포의 유달산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가 도립공원일 겁니다.

그렇지만 도립공원 7부 능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케이블카로 인해서 지금 목포에 관광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저희 대전도 기존에 어떤 방침에서 일보 진보된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과정에서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선진국의 사례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이 양호한 녹지공간은 제외하고 기존 시설부지나 또 기존에 훼손되어 있는 지역도 최대한 환경성을 복원해 가면서 불가피하게 대전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병행하는 것이 맞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 최하위 등급의 어떤 환경문제는 저희가 복원하면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런 과정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많은 시민들하고 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중구의 많은 시민들, 대표자들과도 긴밀하게 상의하면서 또 나아가서 중구청과도

긴밀하게 상의해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우려하는 것과 또 개발하자고 하는 쪽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생각이고요.

한편으로는 무수동에 있는 치유의숲, 호동에 있는 공원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100만 평 이상의 수목원, 치유의숲을 연결하는 사업.

그리고 보문산 뒤쪽에 있는 목달동 같은 경우 휴양림 조성, 이런 것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경쟁력 있는 보문산 관광을 위해서 앞으로 모든 정책적 개발과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이런 것들이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좌고우면 하지 않고 확실하게 추진해 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문산 관광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과 관광 인프라 스토리를 입히는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요즘 관광 활성화 방안에 세계 각국이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것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많은 학자들한테 대전시 야간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조언을 받았는데, 지금 문제는 너도나도 전국 시·도가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데 지나치게 다른 도시와 구분이 안 되게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야간관광과 관련해서는 산보다는 도시 안의 전통시장 안에서 야간에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고 또 야간에 기존 시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관광과 그리고 경제적인 혜택이 함께 병행되는 이런 야간관광을 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오월드 플라워랜드 내 나이트 유니버스를 개장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 올리면 제가 그날 개막식에 갔었는데 저는 그렇게 썩 잘했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나이트 유니버스 정도를 가지고 경쟁력이 있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도시공사사장 포함해서, 새로 부임하면, 정말 새로운 콘텐츠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기왕에 하려면 다른 도시하고 비교해서 정말 한번 꼭 가고 싶을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야간관광과 관련해서는 엑스포대교 야간경관하고 오노마호텔 앞쪽에 음악분수를 지금 한 80m 정도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고요.

또 둔산대교하고 대화대교 등 주변의 전체 다리 또 원도심에 있는 다리들 그리고 유성에 있는, 대전에 있는 전체 다리들도 장기적으로 경관조명을 할 생각이고 내년 예산에 우선 둔산대교, 대화대교 등 인근의 대덕구와 둔산, 서구 그리고 유성구를 함께 포괄하는 경관조명사업을 내년에 본격적으로 해서 경쟁력을 높일 생각인데, 제가 지난번에 UCLG 때 야간에 다니면서 조금 더 야간관광을 위해서 밤이 주는 대전의 아름다움을 표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응을 봐서 우리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보문산 주변, 보문산 특히 진입로, 대사동 쪽 이런 경우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의원님 지역구이실 텐데 호동에 있는, 거기는 대전의 제2의 수목원 한 50만 평 정도를 구축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고요.

이것이 무수동의 치유의숲, 아마 의원님들 가보신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지난번에 처음 가봤는데 거기도 한 50만 평 이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수동과 호동을 연결하는 100만 평 이상의 시민들의 보문산 수목관리, 이걸 통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수목원 포함한 치유의숲도 구축을 할까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경관조명 관련해서도 특히 대사동 이 주변 전체에 대한 고려를 해보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대사동, 부사동 지역의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있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싶어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곳에 준해서 보문산 주변 전체에 대한 경쟁력이 갖춰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인프라에 스토리를 입히고자 하는 제안에 대해서도 저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최근에 유럽 출장을 가면서 그렇지만 사실상 유럽의 유명한, 우리가 유명하게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 가보면 사실 별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야기를 잘 만들어서 이걸 관광상품으로 쓰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라움이 많습니다만 우리 대전광역시도 그런 것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는 일들이 또 장소들이, 문화예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좀 부족해서 지역에 노잼도시라는 불명예를 누가 만들어놨는데 이런 것 개선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의 경쟁력을 위해서 누누이 말씀 올렸지만 건축물 하나하나도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음식, 음식도 하나의 산업과 도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 전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서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문창동 떡골목 부분이나 산성동 칼국수 맛집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깃거리를 확충하는 것도

맞다고 보고 내년 0시축제를 하는 기간 동안 대전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먹거리, 볼거리, 건축물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보문산 중심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보문산이 사랑받는 관광명소로 재탄생하려면 우선 시민의 접근성을 높여야 되고 이동권, 시민 누구나 보문산에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고 장애를 가진 분이나 노약자나 다 갈 수 있는 이동권이 보장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쾌적성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만 보장된다면 야간에, 예를 들어서 보문산 전체에 대한 야간관광개발도 상당히 힘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서 제대로 된 관광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것만큼 환경에 대한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환경생태조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에서 국립공원에 곤돌라나 케이블카를 놓을 때 하는 방식, 그런 노선과 방식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복구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 철저히 사전준비를 해서 환경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접근성이나 관광객 유치 이런 것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송인석 의원님께서는 가칭 천동중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해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질문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인근 개발 현황으로 천동3구역과 대성지구 총 4,397세대의 대단위 개발로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어 해당 학교군 내 중학교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천동중학교 학교예정부지에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학교 설립은 개발지역 해당 학교군 내 학교의 전환 가능 교실 확보와 증축 등으로도 분산배치가 불가능할 경우 추진할 수 있습니다.

천동중학교 예정부지 학교 신설은 현 시점에서는 학교군 내 분산배치가 가능하여 검토 단계에 머무르고 있지만 2024년 천동3구역, 대성지구 입주로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나 학교 설립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군 내 학교 재배치와 학군 재검토를 통해 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 설립 TF도 구성하여 다양한 학교모델을 개발하는 등 내년부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송인석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